

(시나리오 양식)

에...네...르...기...파!!!!(가제)

학번 이름 2021D2019 안광현

학번 이름 2022D2020 원수아

학번 이름 2022S4027 조윤아

학번 이름 2022T1029 홍지아

< 등장 인물 >

주인공: 주인공, 20대 초반, 여, 대학생, 평소에는 조용하며 딱히 튀지 않는 사람이다. 그닥 활발한 성격이 아니다. 밖을 돌아다니기 보다는 집안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다. 과제에 치여 사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과제가 많아서 힘들지만 굳세게 살아가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건 술, 그 중에서도 꿀주. 9:1은 적어도 A에게 만큼은 완벽한 비율이다. A는 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술을 마시고 나면 따라오는 기분 같은 건 A에게 만큼은 서비스인 격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의 기분이나 텐션을 억지로 제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즐긴다. 하루의 끝엔 같이 사는 오빠 B와 술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주인공의 오빠: 주인공2, 30대, 남, 회사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능력 있거나 성과가 높은 사람은 아니다. 소주와 좋은 안주의 조합을 좋아한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장점으로 여동생 A와 독립하여 한 집에 같이 산다. A와 함께 소주와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다.

주인공의 남자친구: 20대 초반, 남, 대학생, 주인공인 여자친구를 자주 속상하게 하는 편이며 주인공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 하나이다.

*주인공의 오빠역과 주인공의 남자친구역 배우는 같다.(1인 2역)

< 줄 거 리 >

A,B는 각자 대학생,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 술을 마심으로서 나타나는 그들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 ▶ A와 B는 남매로, 각자의 힘든 생활을 끝내고 같이 집으로 돌아와 술에 기대어, 가족끼리 몸을 부대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내용.

S#1. 한 대학교 앞, 오후 2시 쯤

맑은 날씨의 어느 날, 횡단보도를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A. 표정이 어둡다.

A, 짜증 났다는 듯 하늘을 한번 본다. 횡단보도에서 맑은 하늘을 보며 눈이 부신 듯 얼굴을 가린다.

S#2. 회사 건물 앞, 오후 6시 쯤

6시 땡하고 쏟아져 내리는 비 속에서 B. 오랜만에 정시퇴근을 했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입이 귀에 걸린 채 집을 가고 있다. 이때, B의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온다. 발신자는 직장 상사로 추정되는 단어가 적혀있다.

B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며 5초 정도 울리는 휴대폰을 바라본다. 곧 전화를 받는다. 퇴근 후에도 B의 상사가 업무를 주며 B에게 화를 낸다. B,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며 고개 숙인 채 한숨을 쉰다.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회사 건물로 옮긴다. B의 뒷모습은 축 처져 무겁기만 하다.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며 짜증을 낸다.

S#3. A의 방, 오후 시간대

A가 하기 싫은 표정으로 과제를 하고 있다. 스탠드가 올려져있는 깔끔한 화이트의 책상에 노트북이 있다.

A, 무표정하게 노트북을 계속 두들긴다. 잘 생각이 안 나는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를 신경질적으로 누른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지친 듯한 표정.

핸드폰에 메시지가 온다. 알림창에 메시지가 계속 뜬다. 발신자는 남자친구로 추정된다. 시간은 오후 7시를 향하고 있다. 알림창에는 “내가 미안하다니까” “진짜 잘못 했어” 같은 식의 메시지가 뜬다. 잠시 텀을 두고 알림창에는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같은 메시지들이 온다.

A,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한다. 알림창에 뜬 메시지들을 확인하더니 신경질난다는 표정을 짓는다. 핸드폰을 다시 덮어버린다.

엎어져 있는 핸드폰이 잠시 잠잠 하더니 다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다.

A, 숙인 머리를 손으로 잡은 채,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있다. 핸드폰에서 알람이 계속 울리자 정말 화가 났다는 듯이 핸드폰을 확 뒤집는다.

A의 핸드폰에 새로 온 알람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배달을 시킨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람이었다.

A, 메시지를 확인하자 표정이 점점 누그러진다. 노트북의 과제물을 한번 본다. 이윽고 노트북을 확 덮어버린다. 일어난다.

S#4. A와 B의 집 거실, 오후 9시쯤

A는 배달 음식과 꿀주를 함께 마시며 먹고 있다. 그러던 중, 띠디떡- ‘문이 열렸습니다.’와 동시에 문이 열린다. 힘든 몸을 이끌며 들어오는 B.

A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본다. A와 B는 반갑지만 미지근한 온도로 인사한다. B는 음식을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든다. 앉자마자 입 속으로 들이밀며 음식을 먹는다.

S#5. 집 안 거실, 어둠이 깊어진 시간.

A와 B는 너나 할 거 없이 술을 퍼붓는다. 서로 따라주고 울기도 웃기도 하며 서로의 힘듦을 술과 함께 흘려보낸다. 그렇게 서로 술에 취해간다.

A와 B, 눈이 풀려있고 볼은 붉게 물들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눈앞이 흐릿해 보인다. 특히 더 정신없어 보이는 A.

S#6. A의 상상 속, 시간대를 특정할 수 없음.(다소 주위가 밝음)

A가 술을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평소 힘들었던 부분을 상상 속에서 극복한다. 과제를 다 버리고 보기 싫었던 남자친구에게도 분풀이를 한다. A의 주위로 반짝이 가루가 뿌려지고 폭죽이 날리는 등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A,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즐겁게 방방 뛰고 있다.

즐거워하는 A의 뒤에서 남자친구가 다가온다.

A, 다가오는 남자친구를 돌아본다. 가볍게 심술궂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곧 결심했다는 듯이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뿔망치로 마구 남자친구를 때린다. 그런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웃으며 뛰고 있다.

S#7. A의 집 안 거실, 밖이 매우 어두움.

A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테이블이 어질러져 있다.

A: (술에 완전히 취해 턱을 괴고 몸을 비스듬히 기울인 채 앉아있다. 눈은 완전히 풀려있다. 볼은 무척 빨갱다.) 마셔라 쪽쪽 술이 들어가. 파워업 다 드루와, bitch, don't kill my vibe. Soju, beer, whiskey 독한 걸로 다 가버려 다 드루와 사양 말고 자 마셔. (고개가 스프링 내려가며 책상에 엎어진다)(립싱크)

S#8. 집 거실에서 부엌으로 이동, 고요히 어두운 밤

B는 엎드려 쓰러진 A를 깨운다. B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다. 냉장고 앞으로 가는 B.

S#9. 집 부엌 , 오후 시간대

B, 라면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온다.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에 앉는다.

그때 걸려오는 전화. 바로 아까 전화 했던 B의 상사다. 하지만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병째로 마시기 시작하는 B. B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얼굴이 빨개진다.

S#10. B의 상상 속, 시간대를 알 수 없음

술에 취한 B가 상상 속에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한다. 상상 속임으로 배경이 흐릿하고 시간대를 알 수 없다.

B, (전화통화) 발신자는 상사이다. 휴대전화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가방에서 서류 봉치를 꺼낸다. 모두 날리고 마구 밟는다. 다소 격양되고 화나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워 보이는 몸짓이다.

S#11. 집 안 부엌, 밖이 매우 어두움.

눈을 떠보니 B는 비워진 소주병을 안고 엎드려 있다. 상사에게 온 전화는 모두 상상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 가스레인지 옆에 라면 봉지가 있다.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다.

B, 라면을 끓이면서 아까 상상으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며 실실 웃는다.

S#12. 집 안 거실, 매우 어두움. 새벽.

B가 다 끓인 라면을 들고 A에게 다가온다. A를 깨우는 B. A는 라면을 보고 신나게 웃으며 둘이 라면을 먹는다.

둘은 라면을 먹으면서 처음 술을 마실 때보다 더 과장된 웃음과 행동으로 라면을 먹는다.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잊으며 해장한다.